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가족의 적응성이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조 윤 주(성신여자대학교 복지학과 전임강사)

점차 늘어나는 소자녀화 현상은 예전과는 다른 부모 자녀 관계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보다 심화되고 있으며 자녀 역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이다. 대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부모는 ‘빈 둥우리 시기’를 경험하며 자녀와 심리적 이유의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녀가 대학생이 된 후에도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의 학업을 비롯한 여러 생활에 간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도 부모에게 독립하려고보다는 이들의 보호하에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헬리콥터 맘’이나 ‘캥거루족’과 같은 신조어가 이러한 성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세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성과 독립성의 욕구는 대학생 자녀가 성취해야 할 주요 발달 과제이므로 독자성과 의존성이 상충되는 과도기에 해당된다. 또한 자녀의 대학 진학이라는 생활 사건에 대해 가족이 얼마나 융통성있게 적응하는가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가족의 적응성이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K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252명(남: 127명, 여: 125명)으로,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Hoffman, 1984)’ 17문항,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Olson et al., 1985)’ 10문항, Baker와 Stryk(1984)의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26문항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 α 는 각각 .880, .825, .697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t 검증, Pearson의 적률 상관 계수,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와 결론으로, 첫째,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적이었으나($t=1.778+$), 적응성은 남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276$). 한편 대학생활 적응은 남학생이 더 원활하였다($t=2.393^*$). 둘째, 심리적 독립성 및 적응성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 관계는 남학생은 각각 $r=-.073$, $r=.525^{***}$, 여학생은 $r=-.247^{**}$, $r=.445^{***}$ 로, 부모와 심리적인 독립성이 적을수록, 가족의 적응성이 높을수록, 자녀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였다. 셋째,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을 개인정서 적응과 사회 적응으로 세분화하여 이에 대한 설명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개인정서 적응에는 남녀 모두 가족의 적응성($\beta=.455^{***}$, $\beta=.359^{***}$)이, 사회 적응에는 부모와 동거 여부($\beta=.324^{***}$, $\beta=.202^{**}$), 가족의 적응성($\beta=.319^{***}$, $\beta=.351^{***}$)이 영향을 미쳤고, 여학생은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성($\beta=-.210^{**}$)도 영향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즉, 가족의 적응성이 높을수록, 부모와 같이 살 경우, 부모와 심리적인 독립성이 적을수록, 자녀의 적응이 원만하였다. 남학생이 부모로부터 독립적이었던 것은 성 역할 사회화에 기인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은 아직 저학년이어서 가족이 함께 융통성있게 대처하고, 부모와 동거하며 받는 안내와 지도에 익숙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학생은 부모에게 의존적일수록, 사회 적응을 잘 하여 이들과의 심리적 유대가 대인 관계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